

도시계획과 워터프런트*

Urban Planning and Waterfront

Jong Gook Seo**

Department of Urban Policy and Administr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solve urban renewal which is one of the problems in the city today through the waterfront. There is a paradigm of urban planning toward a future-oriented city,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city, eco-friendly eco-city of the customer center. As a space having history of the city and state-of-the-art building, waterfront is an essenti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promote population health as a critical environment which have direct impacts on human lives. Sustainable urban waterfront regeneration can carry out the role, making the city that people want to live in the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 cultural aspects of the city. Integrally connected to urban planning and waterfront plan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techniqu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city planning and urban regeneration follows: First, the city forms is to avoid the indiscriminate demolition of city buildings and facilities, and to coexist with the appearance of the old town and the modern city by preservation of the harbor with a long history and waterfront facilities. Second is to maintain of the city edge that has the ability to maximize city function and is to secure living space allowing the flexibility to take advantage of the city limits. Third, the city features for post-modern waterfront community is built to commercial and residential, commercial and hotel complex at the same time possible. Finally, waterfront oriented post-modern city is an attractive city to live all by visually convey the diversity and vibrancy of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3학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Tel. +82-32-835-8741. Fax +82-32-835-0796. E-mail. jgseo@incheon.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Dec. 1, 2014 / Revised: Dec. 10, 2014 / Accepted: Dec. 17, 2014

the city through a new image.

Key words: waterfront, urban regeneration, urban planning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도시문제중의 하나인 도시재생을 워터프런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도시, 역사문화도시, 주민참여도시,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워터프런트는 도시의 역사와 첨단건축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필수 환경요소이다.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 워터프런트계획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의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과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형태는 도시건축물과 시설의 무차별적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와 수변공간의 시설을 보존하여 옛 도시와 현대도시의 모습이 공존한다. 둘째, 단절된 도시경계를 도시의 기능이 극대화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정비하고, 도시경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확보한다. 셋째, 탈산업사회 워터프런트를 위한 도시기능은 주거와 상업 그리고 숙박과 상업이 동시에 복합적으로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끝으로, 탈산업사회 워터프런트 중심 도시는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도시의 다양성과 활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이다.

주제어: 워터프런트, 도시재생, 도시계획

1. 서론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에서 기성시가지나 도심부는 노후화로 인한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과거 개발을 통한 성장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규모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 또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저성장시대의 연착륙으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창 진행 중이던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는 코앞에 예측되는 미분양 사태 때문에 조합을 해산하거나 지구지정을 철회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도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계획의 위기를 시대적 흐름으로만 간주하고 방관하기에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과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왔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통적인 도시개발과 틀에 박힌 도시계획의 기법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컨셉스를 이루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이중용, 2007). 개발위주의 도시개발을 통해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법에서 벗어나 현지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혜택이 귀속되는 진정한 도시 계획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 대도시지역에서는 많은 도심지역이 도시재발과 재건축이 여의치 않아 대안적인 도시정비를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특징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같이 참여하면서 그 지역주민이 앞장서고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의 자생적인 도시사업을 그 대안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일본의 동경 등에서 1990년대 성공적으로 성과를 달성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도 대규모 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장기에 걸쳐 연구하고 또 시범적으로 실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도시정비기법과 더불어 해안과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변공간을 활용을 통한 도시정비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전략으로써 기존 도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면서 기존 자산을 재활용하는 재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변공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는 기법이다. 수변공간을 이용해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를 경험하게 하고 주거환경에서 추가적인 경제요인을 제공하여 매력적인 입지여건으로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외국의 사례로써 런던의 템즈강과 파리의 수변공간이 있으며, Baltimore와 Barcelona는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를 재생한 우수한 사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의 수변공간 도시재생프로젝트가 있다(김영환, 2008). 외국의 경우 다양한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제시할 것이 없다. 이는 도시계획에서 수변공간을 활용한 워터프런트 계획이 제대로 통합적인 역할과 기능이 반영되지 않은 등의 한계로 나타난 결과이다. 오늘날 다양한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과 수변공간의 완벽한 결합을 통한 도시계획이 실천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배경에서 본연구의 목적은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도시재생계획 기법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전통적인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앞으로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간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시재생기법을 모색하여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도시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도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기법과 대안을 새로운 돌파구로써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와 정립에 대해 문헌적인 고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점적인 연구내용으로써는 인간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인 고찰과 변화하는 도시환경조건,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 방향 등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새로운 도시계획 및 패러다임과 같이 병립하는 다른 축으로 워터프런트계획에 대한 계획요소와 기법을 연구 분석한다. 이러한 일차적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두 축인 도시계획과 워터프런트계획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의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과 기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도시계획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시계획패러다임

1. 미래도시사회의 과제

미래의 도시는 지역 또는 도시 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면서 그 모습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핵심은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이어야 한다. 국가나 지역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분권화와 지방화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자율적인 도시정부의 경쟁 환경은 무한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경쟁과 더불어 미래도시는 지속적인 성장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도시성장이다. 다양한 도시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성장이 중요한 요소이다. 매력적이고 살만한 도시는 삶의 질의 향상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의 근원은 성장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성장과 경쟁의 주체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써 과거 비인간적인 도시의 성장과 경쟁은 그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였고 이를 반성하면서 인간중심의 개발과 성장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의 경쟁력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도시는 인간이 원하는 도시여야 하기에 각 개인이나 가정, 집단의 모든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완전히 부합하는 환경, 시설, 서비스 등을 가진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 시설이나 규모에 의해 인간이 위축당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과 감동이 충분히 교환되어 소외감이나 고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 욕구는 도시의 고품격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귀결된다. 쾌적한 도시에 대한 욕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과거 도시가 생성하고 발전하는 도시역사와 늘 함께 하여온 것으로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을 도시 내로 도입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인간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주변의 자연생태계는 보존되고, 도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짧은 여행으로도 항상 자연의 삼림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자연과의 조화가 아름다운, 인간의 정신과 감정이 순화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2. 대도시의 당면과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람들은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도시자원이 다음 세대에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조금은 삭막한 도시환경에 자연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어정연·여홍구, 2008). 도시성장의 지속성을 위해서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보행도로의 조성, 차도 및 보행공간의 연결성 확보, 복합적이고 다양한 토지이용, 다양한 기능 및 형태의 주거단지 조성, 건축물 및 도시설계의 질적 향상, 지역공동체를 위한 거점공간의 마련, 효율을 고려한 토지이용 밀도의 조정, 친근한 보행 공간설계 및 보행공간간의 네트워크 형성,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고려, 삶의 질적 향상 도모 등이 필요하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오픈스페이스나 녹지의 보존·확대 및 자가용사용의 규제 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꾸준한 발전과 시장기능의 확대를 토대로 도시의 성장을 유도해 나가는데 있고, 이에 도시계획은 시장기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인간의 본성과 시장을 이해할 줄 아는 시스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Kenworthy, 2007).

명품도시 만들기의 이해는 인간본성과 시장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소비 행태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시장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는 도시는 그 생명이 길지 않고 소비자 주권의 핵심인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는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성시가지의 정비와 경제특구지역개발의 균형적인 발전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인천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는 관점에서 획일적인 아파트의 공급이 우선되어야 할지는 시장선호도의 문제와 함께 앞으로 계획가와 도시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대한 부분일 것이다.

산업혁명이후 자본축적중심의 공간생산체제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공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강제적으로 도시생애주기를 단축하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공간극대화, 표준공간 생산, 과도한 경쟁논리가 공간생산의 부정부성을 초래하고 과잉생산과 과소이용이 병존하는 등의 공간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도시에서 심각하게 당면하고 있는 대기오염의 문제는 도시의 에너지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 또한 도시의 형태나 공간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의 모색이 필요하다(김용창, 2011).

현대 도시는 직장, 레크리에이션, 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통의 관심을 가지는 집단에 의한 “관심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으나 이웃이 서로 소통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상호간의 책임감을 공유하는 “장소의 커뮤니티”는 부족한 현실이다. 도시 중심부에 있는 공공을 위한 공간, 커뮤니티의 감각을 촉진하는 중심부로의 보행자도로의 연결 등이 커뮤니티 내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만족 등을 고취할 수 있어 더 큰 지역사회의 감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내 장소성을 회복하여 다양한 도시민이 누구나 즐기고 공유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패러다임의 변화

미래의 도시는 과거 전통적이고 근시안적인 기능위주의 도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여야 하며, 공급자 편의위주에서 이용자 요구를 고려한 공공공간계획과 개발지향 계획에서 계획적 공공관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요소를 강조하는 등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토지이용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기능분리 토지이용보다는 다양한 수요와 역할을 포괄할 수 있는 기능통합형 토지이용과 평면적 관리보다는 입체적 관리 체계의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이다(김재익 외, 2002).

도시는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개성 있는 도시로 계획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 도시공간 확보 차원의 계획보다는 장소성을 지향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고밀압축성장을 위한 단순한 물리적 계획에서 저성장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통합의 도시계획이 요구되고 있다(Kenworthy, 2007).

급속한 정보혁명에서 도시는 그 중심핵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도시계획이어야 한다. 관료위주의 상의하달식 행정주도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문가가 만드는 도시에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권용우, 2004).

도시, 문화, 사회 등 기존의 환경들과 인간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원적이고 유기적인 전략을 통하여 하나의 도시 속에 여러 도시기능들이 통합되어 있는 상징적인 풍요로움의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복잡한 도시경험을 가질 수 있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소프트 어바니즘을 통한 전략적 도시 재생의 공간, 도시경험의 공간, 새로운 기능의 통합된 공간을 만드는 도시계획이 요구되고 있다(Rui & Jiao, 2012).

III. 새로운 도시계획 영역으로서의 워터프런트

1. 워터프런트의 기능

인류의 최초 문명들이 대부분 수변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처럼 수변공간은 최초의 공동체적 삶의 근간을 이루는 배경이 되어왔다. 수변공간이 때로는 수해와 같은 재앙의 근원으로써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고 많이 활용되지 않아 문명의 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고대 농경사회로부터 시작된 수변공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문명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공헌하였다. 인류가 고대에 도시문명을 이룩한 이래로 수변공간은 도시발생과 성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왔으며 도시민들의 휴식, 생업, 교통의 공간으로써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왔다. 과거 수변공간에는 정

자와 같은 휴양시설들이 있었고 이곳에서 수변공간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었다. 또한 수자원이 풍부하였기에 어업을 생업으로 삼기도 하였으며 수로를 통해 물자를 나르거나 사람이 이동을 하는 등 교통의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수변공간은 과거와는 달리 건강, 여가, 레포츠, 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정보산업의 급진장으로 정보처리량이 증가하고 국제화에 따른 국제간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공간으로써 도시의 수변공간이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고도화된 정보 경쟁사회에서 잠시 휴식을 위한 비일상적인 활동을 찾게 되는 도시 생활패턴의 변화를 수용하는 활동의 장소로써 수변공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 여가 수요가 증대되어 삶의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욕구가 많아져 도시민들 사이에 수변공간은 새로운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어메니티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발들이 수변공간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도시 수변공간은 여가를 즐기는 방법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의 교류, 문화, 여가 및 건강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과거 도시성장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써 도시의 수변공간은 대규모 공장과 창고 그리고 항만으로 건설 이용되었다, 그러나 일부 수변공간은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과정의 여파로 인하여 도시생활의 중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채 수변공간은 기존의 산업기능을 상실하고 쇠퇴되어 대규모 공간이 슬럼화된 유희지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유희지를 재생하고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수변공간의 재생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존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다양한 정비방안이 요구 되고 있다.

수변공간은 육역과 수역이라는 공간적으로 명료한 지역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독자적 기능부여가 가능하며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수변공간은 ‘물’이라는 자연환경과 ‘도시의 활동’이 만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와 경험이 집적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일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특색 있는 도시공간이다. 수변공간은 지역의 훌륭한 오픈스페이스로 기존의 거점 외에 새로운 거점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도시의 수변공간은 바쁘고 지친 도시인들에게 가장 가깝게 자연을 접하여 삶의 여유와 휴식을 주며 오픈공간으로서 녹지와 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도시자원이다.

수변공간은 개방성, 생산성, 위락휴양성, 쾌적성이 상대적으로 강해 다양한 기능의 상호교차로 고유한 역사성과 함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기능을 지고 있다. 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가치를 담아서 전략적인 수변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역사와 첨단건축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수자원확보 및 생태환경의 거점인 친환경 보전공간으로써 단순히 수자원을 제공해주는 자원공급처가 아닌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써 다양한 수변공간은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필수 환경요소이다.

2. 워터프런트의 핵심가치

워터프런트를 통하여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시대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를 개인, 산업, 경제, 문화, 정치, 생태 등의 부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워터프런트는 개개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보금자리의 가치를 제공 하였다. 식수와 생활용수의 원천이며 어업을 통해 추가적인 식량을 얻을 수 있었고, 수변의 공간은 비옥한 농토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자연적 개인가치 때문에 문명의 발상지들은 대부분 수변공간을 끼고 발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워터프런트는 하드워터프런트의 특성을 띠게 되어 집단적 산업경제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치중하게 되어 자연적 개인가치는 많이 경시되었다.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수질 악화, 수변에 평행하게 발달한 차량과 철도교통망으로 인한 접근성 악화, 하천복개로 인한 하천수 감소 등으로 인해 워터프런트가 개개인에게 주는 자연적 가치는 거의 사라졌었다. 이후 탈산업사회에서는 급격한 소득증대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중시됨으로써 다시 워터프런트의 자연적 개인가치가 강조되었다. 녹지와 공원조성, 복개천의 복원, 접근성 강화, 수질 개선 등을 통해 워터프런트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전환시켰으며, 특히 도보와 자전거길을 만들어 교통로를 확충하는 등 자연적 개인가치를 더욱 강조하였다.

워터프런트는 원시적인 자연적 개인가치를 근간으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산업 경제적 가치를 추가 확대하는 발전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수산물도 물론 농산물 역시 물이 있어야 재배가 가능하므로, 역사적으로 워터프런트는 농업과 수산업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수상교통이 발달하면서 베네치아 공화국과 같이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적 중심지가 조성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조운을 통해 수취하였으며, 각종 물품들이 포구에서 거래되는 등 워터프런트는 집합적 경제가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집합적 경제가치가 더욱더 중시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위해 공업용수를 얻기 쉽고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이 용이한 물가에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의 한신공업지대와 우리나라의 동남임해공업지대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산업화 사회에 늘어난 차량과 철도교통망은 수변을 따라 조성되었는데, 이는 방해 없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교통하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았던 이유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는 산업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문화나 생태적 가치와 같은 다른 가치들은 희생되고는 했다. 이후 탈산업화 시기가 도래하자 수변의 다양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개발된 워터프런트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새로운 산업가치를 갖게 되었다. 기존에는 그저 경유지로서의 역할만 수행했던 항구가 스펙터클을 제공함으로써 그 자체로 관광지가 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수변은 생태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특히 늪지 갯벌 등은 생태계의 보고라 불릴 만큼 생태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한 산업화시기 이전

의 사람들에게는 생태적 환경가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무관심은 산업화 사회에서도 여전했고 자원의 활용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강과 바다에 오폐수를 흘려보내고 깃벌위에 대규모 간척지를 조성하는 등 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해 워터프런트를 이용하였다.

이후 탈산업화 사회에서 비로소 생태적 환경가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대 도시의 워터프런트는 과거 산업화 이전에 비해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람길 역할이다. 도심은 높은 빌딩으로 둘러싸여서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단되는데, 도심의 하천은 주위의 교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자유자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역할을 하여 도시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시킨다. 또한 워터프런트에 조성되는 녹지는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한강의 밤섬이 철새도래지인 것처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삭막한 도시에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써 워터프런트의 생태적 환경가치가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정순원·우신구, 2010).

3.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산업혁명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다. 따라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는 점차 팽창했고 수많은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기존의 도심을 활용하지 않았고 도심의 기반시설과 건축물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었으며, 도시의 커뮤니티가 약화되어 도심의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도심의 쇠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일 수 없이 발생하는 도시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이일희·이주영, 2011).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도시정부는 도시재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많은 도시에서의 도시재생은 도시환경의 물리적인 부분만을 개선하는데 집중함으로써 그 실효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쇠퇴한 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실정이다.

워터프런트의 활용은 이러한 도시재생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적극 고려될 수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드는 사람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급격하게 많은 도시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는 현재에 들어와 낡고 쇠퇴하여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960년~1970년대 이후 버려진 수변공간들이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서 주요 전략 지점으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수변공간은 도시의 성장을 위한 핵심 지역이며 여가와 문화생활의 중요한 활동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 수변도시의 재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하나의 방안으로서 워터프런트를 연계한 도시재생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서수정, 2007).

최근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자 과거 개발과 성장위주의 발전에서 벗어나 환경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정책기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소득증대와 더불어 과거와는 달리 수변공간의 활용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높아졌고, 다양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워터프런트와 같은 신성장 동력 자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워터프런트 도시재생은 친환경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건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워터프런트는 자연과 도시가 하나 되어 만나는 독특한 공간으로써 수질개선과 수자원 및 수환경의 보존을 통해서 도시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거단지와 상업·문화지역의 복합적 재생의 결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축의 건설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도시재생은 대도시 내의 부족한 녹지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도시 어메니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변공간이 이루어내는 경관은 조망권을 고려한 매력적인 주거지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심미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워터프런트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가져온다. 우선 도시 환경이 개선되면서 도시이미지를 높여 해당 도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를 가져온다. 도시 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도시재생은 도시 특유의 관광 프로그램을 잘 조합시켜 성공적인 도시 관광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워터프런트 도시재생은 강이나 바다가 대체로 대도시를 배후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변공간의 토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해 대규모의 쇼핑몰이나 각종 문화 시설 등을 조성한다면 구매력 있는 대규모의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장윤정 외, 2012).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도시재생은 도시민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다. 도시 공간 내에 있는 넓은 수변공간은 도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인 오픈스페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도시 공간에서 오픈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추가함으로써 도시민들 간의 상호 교류가 활성화 되어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내 녹지조성을 위해 수변공간을 따라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도시민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생태공원 안에 청소년이나 각종 동호회를 위한 문화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공통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할만한 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잘 계획된 워터프런트 개발을 쇠퇴한 기존의 도심과 연계하면 도시재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워터프런트 도시재생은 주변지역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수상 동·식물이나 수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한 체험가능한 수변공간의 재생, 그리고 침체되어 있던 수상교통을 관광과 결합한다면, 수상체험 관광과 수상교통 관광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변공간을 찾아온 관광객의 증가를 통하여 주변지역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워터프런트는 육지의 도시와는 달리 차별화된 어메니티를 가지고 있기에 장소의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수변도시라는 독특한 도시브랜드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것이다.

IV. 인간생태중심의 워터프런트계획

1. 워터프런트 도시계획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에서 안고 있는 도시문제중의 하나인 도시재생을 워터프런트 도시계획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도시계획기조를 워터프런트계획에 접목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이다. 새로운 도시계획에서 가장 우선하고 높은 가치를 부가해야하는 것은 소득증대와 더불어 변화하는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이다. 개개인의 생활양식이 보다 합리적 고품격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물리적인 성장을 초월해서 삶의 질 향상이 우선됨으로써 다양하고 여유로운 생활구현을 추구하는 욕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물리적인 도시정비와 성장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는 도시를 계획해야 한다. 도시의 삶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시의 생활환경이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이를 워터프런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에 기반한 친환경 문화관광도시를 워터프런트 도시계획을 통해서 실천하여야 한다. 개개 도시는 역사적으로 수변환경을 이용하여 성장하였고 이를 기초로 나름의 도시의 전통과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으나 급격한 개발위주의 도시성장과정에서 고귀한 그 특성이 희석되었다. 수변환경을 복원하고 정비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고품격 여가와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워터프런트 도시계획이 수변공간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워터프런트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도시공간구조 구상 역시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수용하여야 한다.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초국적 광역대도시의 등장이 필연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화에 따라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어 광역대도시의 역할이 지대해졌으며 도시간의 새로운 협력체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구조의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세계화에 따른 초국적 광역대도시는 기존의 대도시가 세계도시로써 경쟁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상위 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에 기존의 최상위 대도시들의 공간적 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며 아울러 도시간의 계층적 위계 기능의 분담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의 실제적인 도시계획의 공간구조는 도시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도시의 모습이다. 개별 도시의 특성을 극대화하면서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도시체계이다. 이러한 도시체계를 구축하는데 워터프런트 도시계획은 개별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별도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면서 이웃도시와 네트워크체계를 통해 연계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통합기능을 증대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워터프런트 도시계획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필요한

기법이다. 산업사회를 벗어나면서 예외 없이 개별도시들은 고도성장 개발에서 저성장 관리 체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저성장 관리에서 도시민의 다양한 욕구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탈산업사회에 도시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욕구는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보화 시대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기술지식산업의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한 도시기반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지식산업에 필요한 창조인재 양성과 창조성 발휘를 위한 창조환경도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과 도시체계를 통합한 유비쿼터스도시를 조성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서비스허브 도시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인 기술지식산업과 워터프런트가 안고 있는 새로운 다양한 시대적 잠재력을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시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도시를 조성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워터프런트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계함으로써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워터프런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끝으로 워터프런트 도시계획은 주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주민이 참여하여 주도하고 주민에 의해 결정되어 결과를 모니터하며 책임지는 주민참여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의 도심에 거주하면서 많은 주민들은 도시문제 해결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한계적인 공간과 자원의 제약 속에서 도심 자체적으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도시문제의 새로운 해결대안으로 수변공간자원의 활용이 필요하고 스스로 주민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수변공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용할 수 있고 공동의 커뮤니티로 소통하면서 문화를 창조계승하고 가꾸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와 더불어 수변공간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기에 이러한 공간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일련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2. 워터프런트계획 요소

워터프런트는 물이라는 자연과 사람들이 교류하는 문화가 결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과거의 경우 성장 위주 개발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워터프런트의 자연적 요소를 무시한 채 도시라는 요소에 집중하여 개발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성장 이후의 균형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춰 자연적 요소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어정연·여홍구, 2008). 이러한 시대적 특성에 따라 워터프런트에서 강조되는 요소도 변화하였다. 과거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의 의미가 강했으며 이로 인해 항구라는 장소 자체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했었다. 이때는 환경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 환경 파괴적 개발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으로 인해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외에도 인구와 산업이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여러 도시문제와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시민들은 안정성과 쾌적성에 대해 요구했다(이정현 외, 2007). 따라서 최근 고려되고 있는 워터프런트의 요소로는 쾌적성과 환경성, 접근성과 안정성이 있으며 역사성 역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쾌적성은 주로 디자인적 요인들로 구성된다. 적절한 오픈 스페이스는 시각적 경관 확보와 더불어 주민들이 함께 장소를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쾌적성을 위해서는 스카이라인이나 시각 회랑 등의 경관 관리와 여러 의장적 요소가 중요하다.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모방하여 여러 시설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물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우수지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비오톱이나 자연형 제방 등으로 친환경적인 정화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연형 제방은 바람길이나 통풍축 등을 함께 제공한다. 이 외에도 환경성을 위해서는 녹지나 공원, 식생형 시설 등으로 제고할 수 있다.

접근성은 수변 공간으로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행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선을 줄이거나 도로를 없애므로 수변으로의 단절을 해소하고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 등으로 보행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워터프런트라는 자연적인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수변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접근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차량 접근성이 무시되어도 되는 요소는 아니다.

수변 지역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의 접근성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수변지역에 다다랐을 때에는 보행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성은 어디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이 통제하기 힘든 수역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형 제방이나 우수지 등으로 홍수나 해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여러 노후화 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수역 자체의 정체성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나 체험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역사성이란 수역 외의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수역과 역사성은 큰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역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벤트나 체험으로는 레저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우선 일상이나 도심에서 누리기 힘든 수역의 레저는 그 고유의 특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지역 주민이나 혹은 외지 사람이라 하더라도 레저를 누리며 즐긴다면 계속해서 수역을 찾을 유인책이 되기 충분할 것이다. 워터프런트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일깨워주며 방문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레포츠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끼리 서로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다(Chen, *et al.*, 2011).

3. 탈산업사회의 워터프런트 구현

<표 1>은 산업사회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워터프런트와 새로운 패

러다임을 요구하는 도시계획을 접목하여 워터프런트 지향 도시의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도시를 도시 형태, 도시경계, 도시기능, 그리고 도시이미지 측면에서 선행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권영상·조민선, 2010; 서은영 외, 2012; 정순원·우신구, 2010). 첫째, 도시형태의 구성에서는 과거 도시개발과 정비를 명분으로 한 도시건축물과 시설의 무차별적 전면철거를 지양하여야 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와 수변공간의 시설을 보존하여 옛 도시와 현대도시의 모습이 공존하는 도시형태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범선의 전시를 통한 과거 항구의 역사성을 시현하고, 창고와 플랜트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한 문화적 유산으로 보존, 드라이 도크를 광장 등의 공공장소로 활용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수변공간에 대한 대응의 방법에서도 과거 안전을 명분으로 수공간을 방어와 격리수단으로 활용한 것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시형태를 조성하여야 한다.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혹은 물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형태로 조성하여 물에 대한 접근과 접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형태에서도 부유하는 듯한 가벼운 건축 형태와 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가볍고 유연한 이미지의 건조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표 1> 워터프런트 계획기법

| 구분 | 계획기법 |
|-------|--|
| 도시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시설의 보존: 범선의 전시를 통한 과거 항구의 역사성 시현, 창고와 플랜트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한 문화적 유산으로 보존, 드라이 도크를 광장등의 공공장소로 활용 ◦ 수공간에 대응: 수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혹은 물을 경험할 수 있는 형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 물에 대한 접근과 접촉에 대한 욕구 충족 ◦ 부유하는 듯한 가벼운 건축 형태: 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가볍고 유연한 이미지의 건조 환경 |
| 도시경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철도, 산업시설에 의해 단절되어 있던 물과 도시 사이의 경계를 유연하고 다기능적인 표면으로 활용: 해변산책로, 수변공원, ◦ 물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 위한 생활의 공간: 도시와 도시, 도시와 사람, 사람과 강이 적극적으로 연결, 카페, 공원 |
| 도시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인 기능: 주거와 상업, 숙박과 상업, ◦ 수변에 위치하는 것이 필수: 페리, 마리나 터미널, 선박수리 및 건설, 낚시, 수상 ◦ 수변에 위치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며 효율적: 공업제조플랜트, 창고 및 저장 시설 ◦ 수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 가능, 수변에 대한 직접적 관련 무관, 수변의 환경적 장점 활용: 주거시설, 호텔, 공원, 상업 및 서비스 복합시설 |
| 도시이미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이미지 변화의 기회: 상징적인 경관 형성, 다양한 페스티벌 ◦ 다양성과 활기를 시각적으로 전달 |

둘째, 도시의 구체적인 모습의 하나인 도시경계가 도시의 기능이 극대화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고도 산업 성장시대에 필요한 도시인프라의 급격한 공급은 현대도시시를 궁극적으로 단절시켜 도시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로, 철도, 산업시설에 의해 단절되어 있던 물과 도시 경계를 유연하고 다기능적인 표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변산책

로나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도시경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단절된 공간의 연계와 더불어 물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기 위한 생활 공간의 확보도 필요하다. 도시와 도시, 도시와 사람, 사람과 강이 적극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수변공간에 카페와 공원 등의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탈산업사회 워터 프런트를 위한 도시기능은 단순한 과거의 기능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기능을 추구하여야 한다. 단순한 과거 물류 항만산업을 초월해서 주거와 상업 그리고 숙박과 상업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변의존적인 기능으로 수변에 위치하는 것이 필수인 페리, 마리나 터미널, 선박수리 및 건설, 낚시, 수송 등의 기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더해 수변연계 기능으로 수변에 위치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효율적인 공업제조플랜트, 창고 및 저장 시설 등이 있다. 또한 수변과 독립적이지만 미래지향적인 기능으로 수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가 가능하고 수변에 대한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 수변의 환경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 호텔, 공원, 상업 및 서비스 복합시설 등이 있다.

끝으로 탈산업사회 워터프런트 중심 도시는 도시이미지의 획기적 변환의 기회로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역할이 쇠락한 수변공간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잊혀진 수변공간의 역사를 되살려 전통적 역사성과 문화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징적인 수변 및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특징하는 다양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야 한다.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도시의 다양성과 활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도시문제중의 하나인 도시재생을 워터프런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와 정립에 대해 문헌적인 고찰을 하였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과거 공급자위주의 도시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도시,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가 살아 있는 개성 있는 역사문화도시, 관료위주의 상의하달식 행정주도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참여도시, 도시, 문화, 사회 등 기존의 환경들과 인간이 통합되어 있는 상징적인 풍요로움의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미래사회의 여건과 당면과제에 기인한 것이다. 미래도시사회의 여건을 살펴보면 도시는 지역 또는 도시 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성장과 경쟁의 주체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간중심이여야 하며, 인간중심 도시의 고품격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시의 당면과제는 우선 현실세계에서 우

리가 경험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의 이해는 인간본성과 시장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소비 행태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는 도시주민의 자율성 확대 문제, 개별경제주체들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구조의 효율성 문제, 도시내 장소성을 회복하여 다양한 도시민이 누구나 즐기고 공유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사회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미래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이 지향하여야 할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워터프린트에 대한 기능과 가치 그리고 도시재생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워터프린트는 최초의 공동체적 삶의 근간을 이루는 배경으로 문명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공헌하였다. 오늘날 수변공간은 과거와는 달리 건강, 여가, 레포츠, 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공간으로 변화하여 도시 생활패턴의 변화를 수용하는 활동의 장소로서 수변공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가치를 담아서 전략적인 수변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역사와 첨단 건축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써 다양한 수변공간은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필수 환경요소이다.

워터프린트를 통하여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는 시대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워터프린트는 원시적인 자연적 개인가치를 근간으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산업 경제적 가치를 추가 확대하는 발전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탈산업화 사회에서 비로소 생태적 환경가치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삭막한 도시에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써 워터프린트의 생태적 환경가치가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도심의 쇠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쇠퇴한 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워터프린트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할만한 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워터프린트는 육지의 도시와는 달리 차별화된 어메니티를 가지고 있기에 장소의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수변도시라는 독특한 도시브랜드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을 워터프린트 도시계획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도시계획기조를 워터프린트계획에 접목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도시계획이다. 세계화에 따라 필요한 초국적 광역대도시를 워터프린트 도시계획을 통해서 협력적 네트워크도시로 구현한다. 워터프린트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계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워터프린트 도시계획이다. 워터프린트 도시계획은 주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워터프린트 도시계획에서 주요한 계획요소로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적절한 오픈 스페이스는 시각적 경관 확보와 더불어 주민들이 함께 장소를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쾌적성,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모방하여 여러 시설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환경성, 워터프런트라는 자연적인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수변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자연형 제방이나 유수지 등으로 홍수나 해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여러 노후화 된 시설을 관리하는 안전성,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을 위한 역사성 등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도시계획과 워터프런트계획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의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과 기법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형태의 구성에서 도시건축물과 시설의 무차별적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와 수변공간의 시설을 보존하여 옛 도시와 현대도시의 모습이 공존하는 도시형태를 제시하였다. 수변공간에 대한 대응도 방어와 격리수단 보다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혹은 물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형태로 조성하며 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가볍고 유연한 이미지의 건조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단절된 도시경계를 도시의 기능이 극대화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도시경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공간의 확보를 제시하였다. 셋째, 탈산업사회 워터프런트를 위한 도시기능은 단순한 과거의 기능에서 벗어나 주거와 상업 그리고 숙박과 상업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탈산업사회 워터프런트 중심 도시는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도시의 다양성과 활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권용우. 2004. 도시개혁과 시민참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7(1): 13-27.
- 권영상, 조민선. 2010.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 5: 1-357.
- 김영환. 2008. 수변공간 문화재생의 계획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해외사례 고찰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24(8): 207-216.
- 김용창. 2011.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 특징과 성장편의 공유형 도시발전 전략의 구성. 공간과사회. 21(1): 105-147.
- 김재익, 김정환, 김철수, 윤병구, 김한수. 2002.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11(1): 5-26.
- 서수정. 2007. 지속가능한 개발과 뉴어바니즘 이론의 적용에 의한 영국 버밍햄시 도시재생의 특성. 국토계획. 42(7): 125-143.
- 서은영, 이철수, 원제무. 2012. 계획요소를 통한 대도시 수변공간 도시재생프로젝트의 비교분석. 국토계획. 47(6): 109-122.

- 어정연, 여흥구. 2008. 도시재생축면을 고려한 수변공간구성 연구: 프랑스 파리 동쪽지역개발계획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3(4): 119-130.
- 이일희, 이주영. 2011.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학회지. 12(6): 101-114.
- 이정현, 강준모, 황기연. 2007. 복합용도의 수변공간 설계 시 고려요소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 이종용. 2007.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도시개발정책에 주는 시사점. 지리학연구. 41(3): 265-274.
- 장윤정 외. 2012. 수변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환경개선 사례 연구: 독일 하펜시티와 도쿄시 나가와 텐노우즈를 중심으로. 청운대학교 관광산업연구. 6(1): 44-55.
- 정순원, 우신구. 2010. 탈산업시대 소프트 워터프런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5): 71-80.
- Chen, Qun., Yanbing Ye., and Lijin Ma. 2011. Excavation and Shaping of Distinctive Elements in Landscape Planning of Modern Urban Waterfront. *Applied Mechanics and Materials*. 71-78: 12-17.
- Kenworthy, Jeffrey. 2007. Urban Planning and Transport Paradigm Shifts for Cities of the Post-Petroleum Age. *Journal of Urban Technology*. 14(2): 47-70.
- Rui, Yang. and Linxi Jiao. 2012. A Study on the Innovation of Urban Planning Paradigm Based on Low-Carbon Coconcept. *Advanced Material Research*. 368-373: 3427-3430.

서중국: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A Sequential Urban Land Use/Transportation Model: The Dynamic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Urban Spatial Structure, 1993), 현재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도시계획, 도시행정, 교통계획, 도시경제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Decentralising Metropolis: Economic Diversity and Commuting in the US Suburbs(2006)”, “통행행태와 도시특성에 관한 연구(2012)”, “통행행태와 거주이전 관계에 관한 연구(2013)” 등이 있다(jgseo@incheon.ac.kr).